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신학협의회)

WAG APTA 이사회 및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학교육 상황점검 오순절신학 정립



세계하나님의성회 APTA(아시아 태평양신학협의회) 이사회와 '아시아에서의 오순절 정체성' 이란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9일(월)부터 12일(목) 까지 3박 4일간 태국 방콕 태국 오순절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학교육 상황과 복음주의적인 오순절신학의 정립과 미래 교육인재의 양성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APTA 미팅에는 본 교단 국제총회장인 심용재 목사가 한국교회 신학교육 상황을 소개하는 등 한국교회와 예하성 교단의 교육상황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사회에서는 미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학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 국가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10개국 40여 명의 각 국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교육의 끝나는 열기 속에 열려 '아시아에서의 오순절 정체성'에 대하여 패널들의 발표와 응



답 그리고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심포지엄 발제로는 1. 오순절주의 2. 필리핀 중동 해외 근로자들의 오순절 실천과 선교의 중요성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오순절신학 교육의 모델 4. 실용주의와 호주 오순절주의 5. 한 세기 말레이시아 하나님의성회 오순절주의 상황 6. 중국 오순절주의 등을 주제로 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활성화와 지

역별 인재양성을 위해 보다 면밀하게 각 지역별 필요를 살펴 신학교육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을러 내년 심포지엄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 성 소수자)에 관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논의 및 발표를 듣기로 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5회 임원회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온라인 기도회 적극 참여

‘요동하는 국내외 정세 극심한 자연재해’ 어디서든 깨어 기도해야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5회 임원회가 지난 9월 24일(화) 오후 1시 순복음기제중앙교회(담임 장동근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 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17:10-16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다.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고도 과언이 아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지 않았다.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함께 산위로 올라간 아론과 훈이, 전쟁이 끝날 때까



지 모세의 팔을 붙잡고 높이 올렸다.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에 있지 않았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달려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전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집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로 아세아 태평양지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회의(APAGF)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려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교단의 비전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비전에 대한 높은 평기를 받기도 했을 보고했다.

또한 교단 교육국 주관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청소년연합수련회가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에서 2백여 명의 내일의 주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각종 보고와 사고지방회 임원 임명 등을 처리했다.

이어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타

교단 교역자 본 교단 기업자 연수교육, 제12차 전국 사모회 단합대회가 10월 21일(월)-23일(수) 전원성전에서 개최되는 내용 등이 보고되었으며 10월 3일(목) 한국교회 기도의 날에 각 교회별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알렸다.

임원들은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가 10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 날’로 하여 각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는 날로 정한 이날은 5년 전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 날’에 전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광장과 도로에 입주한 여지없이 모여 기도했다. 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로 인하여 모두 일심으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임박한 위기를 면하게 하여 주셨다. 하지만 지금은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 날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며 급변하고 요동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극심한 자연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 각 교회와 각 채소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현재 거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기도문을 올린다든지 의견을 전하여 기도의 확산을 위해 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조종목 목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본문의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은 심정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고 동정하며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당면한 곤란을 타개하도록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여 이해득실을 따지는 타산적 인간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하며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성도는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앉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비난을 받는 사례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을 수 없고 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한 행위와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누구든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윤법의 척도로만 상대를 판단하면 정죄할 것밖에 없는 반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면 동정과 이해도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미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치료하였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에 얹매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므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최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절망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혼이 절망하고 굶주

린 상태에 있는 사람,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여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갖 혼란을 감내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하며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하며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긍휼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천성적인 것이 있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항상 이를 상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긍휼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천성적인 것이 있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앉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하고 폐마른 사람, 윤법의 척도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피며 합니다. 반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활기차게 하고 온화하게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고시위원회-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30일(월)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회 이문근 목사의 기도, 고시위원회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디전 1:12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부르심’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세우신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직분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 나가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



“기독교 모욕한 김성회는 사퇴하라”

한기총, 국회 앞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월 1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막말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지난 3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였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모욕적 언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함부로 내뱉었다”며 “이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조롱하는 막말이요 극악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망령된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제 한국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 참담한 상황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회 의원은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국회 의원은 기독교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 ‘막말’ 특권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회장은 “한기총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며, “함께 일어나 교회를 짓밟고 모독하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정신을 바

짜 차리고 지켜봐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기총은 기자회견 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항의서한에서 “보수 기독교와 탈레반주의자라는 말을 연결 시켜 1,200만 성도와 한국교회 및 보수 기독교를 모욕하며 조롱한 극악한 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으로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튀르키예에 현지어 성경 10,800부 보내

성서공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마음 열리길



2023년 5월 18일 발송되었고, 2차로 〈튀르키예에 신약〉 2,985부와 〈튀르키예 성경〉 5,000부가 2023년 8월 17일 추가로 발송되었다. 이번 3차 발송까지 합하여 현재까지 튀르키예에 성서 총 34,658부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튀르키예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지진 이후 성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앞서 발송된 성경은 지역 교회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티커성서공회 총무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다른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온다. 이를 통해 보는 것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크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점”이라며 성경이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렸다.

성서공회는 성경 지원을 요청해왔다.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3차 발송 분 〈튀르키예 신약〉 10,800부를 튀르키예에 보냈다.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 교회와 터키

1차로 〈튀르키예 신약〉 15,873부가

예장 백석총회, 제47회 정기총회 성료

저출산대책위 신설, 이단 탈퇴자 가입 규정도 마련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는 지난 9월 9일(일)부터 11일(수)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를 주제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7회 정기총회는 1만 교회로 부흥 성장한 백석총회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금권선거 만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깨끗한 임원선거를 치러낸 백석 정기총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1,008명 총대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를 받았다.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작년 정기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한 선거인단 제도



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8월 19일 선거인 투표를 마친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보고하고 추인 받았다.

신임 총회장은 부천 목양교회 이규환 목

사, 목사부총회장은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1 목사부총회장은 양문교회 이승우 목사, 장로부총회장은 큰사랑교회 오우종 목사가 추대됐다.

예성-굿네이버스, 업무협약 체결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나눔문화 실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와 (사)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위기아동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난 9월 5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고천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교단에서는 김만수 총회장과 권순달 총무, 이순영 사회복지국장이 참석했으며, 굿네이버스에서는 장성계 서울인천권역본부장, 서은경 서울북부사업본부장, 강호진 서울북부사업본부장, 김우섭 경기강원권역본부장과 함께 했다.



협약식은 서은경 본부장의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권순달 총무의 기도와 김만수 총회장, 장성계 본부장, 강호진 본부장의 인사말, 협약 소개 및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순

으로 진행됐고, 김만수 총회장이 축도를 함으로서를 마무리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깊주름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로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예성은 총회와 지방회 및 교회들이 공동으로 앞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지원 협력 및 이웃사랑 실천 협력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 업무협약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서기총)는 굿네이버스 서울인천 권역본부(장성계 본부장)는 아동권리증진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은평제일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심하보 서기총 대표회장, 노곤체 서기총 사무총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장, 전정환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위기아동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장학금 및 경제적 지원 연



계체계 확립과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을 상호간 협력하여 진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는 서기총과 함께 지역 내 위기아동 사례연계를 통해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하보 서기총 대표회장은 “다음세대를 위한 아동권리 증진 및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장은 “지역내 선한 영향력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전주 예수병원,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 안전 캠페인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총식)은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원 로비에서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

환자안전센터는 2024년 ‘다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환자 안전 캠페인을 주제로 전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수병원에서는 전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나



뉘어 진행됐다. 의료진이 참여한 ‘진단 향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 프로그램을 통해 직종별로 자신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다짐을 적었다. 이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예수병원의 의료진의 진솔한 마음이 전달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과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의 진단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연계 활용 예정이다. 또 안전한 진료 함께하기 설명서’ 제작을 통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외래 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설명서는 휴대가 간편해 타 의료기관의 방문 시에도 효과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진료에 기여 할 수 있게 됐다.

예장합동보수, 제109회 사무총회

교역자세미나 개최 등 사업계획 수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지난 9월 9일(일) 오전 11시 부천시 역곡로 소재 옥토교회에서 제109회 사무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 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문인주 목사 사회로 서울노회장 임창재 목사의 기도, 천양노회 서기 전남수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심의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제3부 회무처리는 의장 반정웅 목사의 사회로 서기 최영희 목사의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됨으로 의장 반정웅 목사가 개회선언을 했다.

회무처리는 계속해 회무처리와 함께 서기, 회계, 감사, 선교위원회 등 모든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안건토의 시간으로 들어가 교역자 자질함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합동수련회 실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회의록서기의 회의록 낭독, 의장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총회장 반정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식은 총무 전혜숙 목사의 집례로 천양노회 최병화 목사의 기도, 전혜숙 목사의 고전 11:23-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만찬’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 분별과 분장 순으로 진행됐다. 제3부 회무처리는 의장 반정웅 목사의 사회로 서기 최영희 목사의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됨으로 의장 반정웅 목사가 개회선언을 했다.

회무처리는 계속해 회무처리와 함께 서기, 회계, 감사, 선교위원회 등 모든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안건토의 시간으로 들어가 교역자 자질함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합동수련회 실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회의록서기의 회의록 낭독, 의장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총회장 반정웅 목사 △부총회장 문인주 목사 △총무 전혜숙 목사 △서기 최영희 목사 △회계 박영희 목사 △회의록서기 권선일 목사 △감사 임종철 목사 △기념증정 △기념촬영



월드비전부흥협, 발족 및 연수회

대표회장에 허은혜 목사 등 임원 선출

월드비전부흥협회(합동보수)는 지난 9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강남금식기원에서 발족예배를 드리고 대표회장에 허은혜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현 목사의 대표기도, 교육회장 김정미 목사의 성경봉독, 교육회장 이명진 목사의 몸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는 창 13:14-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황금어장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무 조수연 목사의 헌금특송, 부총재 양윤숙 목사

의 현금기도에 이어 2부 대표회장 취임식 및 임원 임명식 시간은 상임회장 김숙임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에 대한 약력소개, 취임패 전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헌신으로 단체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가 고문 조요셉 목사를 비롯한 총재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총본부장 민병호 목사를 비롯한 회장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부 격려사·축사·특별기도 시간에는 상임회장 김숙임 목사의 사회로 대표고문 조요셉 목사·상임총재 노영균 목사의 격려사, 실무총재 한신 목사·소망교회 고종욱 장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의 말씀



최형택 목사

- 교단 전임 총무
- 전라지방회 전임 지방회장
-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일어나라 비느하스

민 25:2~25

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며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염병으로 이만 사천 명이 죽어가는데서 그쳤습니다(민 25:9).

하나님을 감동케 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형벌은커녕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라.

민 25: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아가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바로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되 나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평화와 함께 주십니다.

민 25:12~13 “그러므로 말씀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이 마음에 들었으면 두 가지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히 유효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왕정시대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므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순 시내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들을 모두 한 번에 다 쓸어버렸을까요?

3. 이 시대 분노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주 위해 싸워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 말씀 선포하라!

바로 눈앞이 가나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어찌 거기서 배도의 길을 가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 25:

2~3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즉장시대의 우상과 함께 음란한 모습이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 2:26~2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로부터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의 참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궤계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살롬은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므로 이 시대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심판을 앞에 두고서 니느웨로 돌아간요나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3번이나 이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구나” “내 마음 속에도 네가 있단다”

나의 남은 제사장 직분을 다 마칠 때까지

평화로 지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질투심,

곧 사랑의 열정을 외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주 위해 외쳐라! 주

님 오실 날 가깝고 어찌 이 때에 배도의 길

을 가나 어찌 이 때에 음행에 빠지는가 일

어나라 비느하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의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어찌 이

때에 우상에 절하는가?

계 18:2 “힘찬 음성으로 와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쳐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곳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심판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분노로 솟아오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계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님과 와서 내게 말하여 ...큰 음녀가 밭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예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심판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고 외쳐야 합니다.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밭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엘리야와 여러 많은 선지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 하나님과 비느하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다면 “네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구나” “내 마음 속에도 네가 있단다”

나의 남은 제사장 직분을 다 마칠 때까지 평화로 지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질투심, 곧 사랑의 열정을 외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주 위해 외쳐라! 주님 오실 날 가깝고 어찌 이 때에 배도의 길을 가나 어찌 이 때에 음행에 빠지는가 일어나라 비느하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의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어찌 이

때에 우상에 절하는가?

한 모습이 아닌가. 40여 년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386세대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정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와 바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에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만은 가중시키니 말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러면 왜 통일운동을 해 왔는가?

통일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이제는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 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당하게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의 말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동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지난 9월 24일(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임을 환영하며, 김성회·천하람 의원에 대한 칭찬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인권 위가 북한 인권에 주목하고 마르크스적 레디컬 패미니즘과 젠더아이덴티티를 기인권 논의에서 견어낼 것을 요청했다.

감리교 감독회장에 김정석 목사



김정석 목사(광림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9월 26일(목) 진행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김정석 목사는 총 8,354표(57.38%)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부족한 저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혁 목사, 합동총회장 이·취임



예장 합동이 지난 9월 25일(수) 저녁 총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제109회기 총회장에 취임한 김종혁 목사는 “직전총회장님의 지도를 따라 잘 살기겠다”고 짧게 인사했다. 이 예배에서 이임사를 전한 제108회기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우리 김종혁 목사님이 총회장 배턴을 이어받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 출범



성경적 감리교회 수호를 위한 감리회 동성애대책 통합위원회(위원장 김진호 감독, 이하 통합위)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위는 9월 25일(수) 인천 만수동에 위치한 중부연회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이 감리교 전체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에 정치권의 한 인사가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자’ ‘두 국가 체제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고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며, 무책임한 말이다.

그는 다른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1980년대부터 ‘통일운동’을 주창해 온 일종석 전 의원이다. 그가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맺어진 선언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를 전면 폐기한다는 선언으로 그 합의는 완전히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쓸모도 없는 선언을 자기들끼리 6주년 행사를 한다

면서 뜻밖지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고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0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석 전 의원은 1980년대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석 전 의원을 밀입북시켜 북한에 들어가게 했고, 2018년에는 남북정상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금 까지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기다려 왔다. 그런

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지만,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위험한 것은 우리가 두 국가 체제로 가게 되면, 북한이 급변 시에 북한의 주민들을 구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의 우리 영토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학생운동을 했었고 1999년에 정계에 입문한 임 전 의원이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정치가로, 국민으로서도, 그가 20대부터 해 왔던 통일운동에 의하여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386세대의 이런 행태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1999년 임 전 의원과 정치계에 함께 입문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최근 그의 책을 통하여 ‘총론으로 보자면 그룹으로서의 386세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금도 80년대식 사고에 갇혀 있고,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하여 정치권에서 제대로 기여하지도 못하는 불완전

대의 핵심으로 불린다. 이 세대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주류이다.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386세대로 구별되는 1961년부터 1969년생까지의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78명이나 된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자그만치 117명에 이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386세대의 이런 행태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러면 왜 통일운동을 해 왔는가?

통일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이제는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 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당하게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의 말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군선교위원회, 단양대대 장병 위문

단양지구 전투 전사자 유해발굴단 찾아



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장병들과 함께 발굴현장에서 드린 예배에서 정석현 목사는 담후 2:4 말씀을 본문으로 ‘명령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 이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노고와 애국충정에 감사하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나리를 위해 싸우다 스러져 간 선진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박순용 목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

이날 장병들에게는 영월 열린교회(담임 유현열 목사)의 후원으로 빵과 음료수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홈페이지: 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상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석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td	

2024년도 73차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열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살전 1:3)



순복음주찬미교회, 순복음갈릴리교회, 순복음세움교회에서

개회예배설교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담임국장 조영란 목사
단한밸리교회 담임

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큰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준 목사는 첫날 개회예배에서 고후 5:6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만 비라보고 나가는 여교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전국에서 참여한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밸리교회 당회장)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원들이 벽지에 서로의 마음을 모아 자신의 신앙과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융동으로 표현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촛불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도 했다.

이어 여교역자국장 조영란 목사는 ‘여

목회자의 리더십과 사역의 고종’ 이란 주제

의 특강을 통해 여목회자로서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

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회원들은 둘째날 오전과 오후 송정바다

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

을 즐기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

은 시간마다 설교말씀을 통해 사명을 일깨

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

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바른 복음전파

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전임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에게 감사패

직전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에게 감사패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



광안리바다에서 요트를…



해운대 해변열차



송정바다 기차역에서

워크샵을
통해 신앙과
비전을 점검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순복음주찬미교회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주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

강
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이을순 -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령교회



신동신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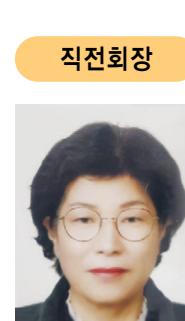
차주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강사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2024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전임회장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왕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을 때 하는 후회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조어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세기 영국왕 헨리 8세(Henry VIII) 밑에서 오랫동안 황제에 맞먹는 권위를 지니고 행세해 왔던 추기경 울지(wolsey)는 마침내 왕의 신임을 잃게 되고 대역죄로 체포되었다. 그가 런던에 갇혀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감시하던 윌리엄 킹스턴 경 (Sir William Kingston)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온다.

“내가 왕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인데...” 참으로 바보같이 살았다는 말이다. 더구나 신앙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고쳐서 다시 살아볼 수도 없는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탄식해도 소용없고 슬퍼해도 고칠 수 없는 일이다.

추기경 울지(Wolsey)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된 이들은 울지처럼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목적인생... 땀방인생...

사노라면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어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잘 수 없을 만큼...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만큼...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는데

어찌 그 사랑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사노라면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땀방 인생입니다.

목적이 되지 못한 인생...

지나쳐 버리는 인생...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람

누군가의 목적인 줄 알았다 땀방인 것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씁쓸함... 불쾌감...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찾아오십니다.

여러 상황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보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만나려 오신다니...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 찾아오신다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 내게 들려졌다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땀방인생의 순간임을
알아채고 씁쓸함을 맛볼 때
성령님은 이런 마음을 넣어 주시며
날 위로해 주셨다.



천년초의 효능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에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향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짹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제조일: 2024년 01월 10일
기한: 2025년 01월 09일
제조자: 70인 천년초식품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기로 123
전화: 031-123-4567
이메일: info@70in.co.kr

제조일: 2024년 01월 10일
기한: 2025년 01월 09일
제조자: 70인 천년초식품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기로 123
전화: 031-123-4567
이메일: info@70in.co.kr

제조일: 2024년 01월 10일
기한: 2025년 01월 09일
제조자: 70인 천년초식품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기로 123
전화: 031-123-4567
이메일: info@70in.co.kr

제조일: 2024년 01월 10일
기한: 2025년 01월 09일
제조자: 70인 천년초식품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기로 123
전화: 031-123-4567
이메일: info@70in.co.kr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암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2024년 10월 3일 10시 30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14)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65:2)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18:19)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회에 모두 동참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와 주심을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 주십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동 참 방 법 : 홈페이지 한국교회기도의날.kr

유튜브채널 [youtube.com @한국교회기도의날](https://www.youtube.com/@한국교회기도의날)

주 관 :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 (문의 : 010-6584-8138)

참 여 : 국내외의 모든 교회, 모든 신자, 누구든지

주최 및 협력 :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회원교단200여 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한국보수시민단체및전국기독교총연합(320개 단체)



유튜브채널
QR코드